

지역 매아리

부안 하서면,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부안군 하서면은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지난 13일 하서면 게이트볼장에서 개최했다.

효의 참 의미를 실천하는 하서면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년 관내 어르신 400여 명을 모시고 효 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

정읍시가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청년 창업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높임으로써 쇠퇴한 원도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도시 활력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1일부터 접수 종료로 마감은 오는 31일이다.

공모전에는 대학생 이상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ongup.go.kr), 전북과학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bc.ac.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2017 정읍시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이메일(jongupir@naver.com)로 참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시정 발전 방안 모색

정읍시는 지난 13일과 14일 내장산국립원예가람광장에서 '정읍시 미래전략추진단 중앙자문위원'과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인구 늘리기 추진 방안 지역발전이라는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전국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정읍 구절초축제장을 방문, 관광자원 개발과 꾸준한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김성기 시장은 "정읍구절초축제에 이어 20일에 개최(19일 전야제)하는 정읍시문화제와 28일 시작되는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도 전국적인 행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 특화형 개발사업 협력

고창군-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발전·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부가 지역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에서 박우정 고창군수와 김완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식이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양 기관은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주거와 특화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특화 및 수요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고창군의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발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양한 현장경험을 활용해 주거, 산업, 도시재생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의 현안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고창군의 주거복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민과 귀농귀촌인, 직장인들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다양한 주거형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최적의 주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거주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희 전북본부장은 "고창군은 문화와 역사, 자연생태 분야 등 자원이 풍부하고 편리한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지역맞춤형 주택건설, 지역전략사업, 중추적 도시 성장사업을 발

굴하여 6차 산업 융·복합 발전과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 인구유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우수한 고창군의 행정력과 50여년의 도시 및 주택건설 운영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LH가 공동협업을 통해 고창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세부사업 발굴 투자 유치 등에 적극 나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본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역역사회 정신건강 개선 방향 모색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황태영)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소 10주년 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성기 시장과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을 비롯 시의원, 전북도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0주년 기념행사에 각급 기관 단체장의 축하 인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계속된 세미나는 '정읍시 정신건강

복지사업 발전적 미래 전략'을 주제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상근 단장이, 공동좌장은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황태영 센터장이 맡았다.

이날 각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야별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다. ▲전북도 보건외과과 정신건강팀장(전북도 실무자 관점) ▲이도형 정읍시의회 의원(시의회 의원

의 관점) ▲황태영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점)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고성희 교수(신학협력관점)가 참여했다.

지정 토론자로선 이종열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사무국장, 이준화 정읍신문 국장, 손동혁 정신재활시설 마음사랑의 집 시설장이 나섰다.

토론에서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현황과 쟁점을 토대로 개선 방향 등을 모색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형재난 발생상황을 대비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각 협업부서와 군,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능의 적정성과 재난 유형에 필요한 참여기관 범위 설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실효

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군은 재난유형별 상황설정 통합시나리오 작성,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상황판단회의 방법, 훈련참가자의 임무와 역할, 토론훈련 진행방법, 훈련평가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올해 지진으로 인한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 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및 단체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며, 2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대책을 논의 하는 등 훈련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훈련 기간 중 심폐소생술,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익히기 등의 생활안전교육을 통해 주민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군민참여를 제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인 만큼,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내장산, 단풍으로 물들다

첫 단풍 20일 · 절정 11월 8일 전망

정읍의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다. 눈썹과 발뚨의 무성한 풀은 온기가 풀은 황토빛으로 진해져가고 가을이 풍덩 빠진 정읍천 물빛은 한결 어련해졌다.

여기저기 고운 빛들이 감동을 주는 계절, 가을이다. 가을 정읍의 중심, 내장산에도 물감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올해 내장산의 첫 단풍은 10월 20일, 절정은 11월 8일께가 될 전망이다.

내장산에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중 당단풍과 좁은 단풍, 털단풍, 고로쇠, 왕고로쇠, 신나무, 복자기 등 11종이 서식하고 있다. 전국 최고 단풍명소로 이름을 떨치는 이유이다. 특히 내장산 단풍은 잎이 작고 빛깔이 진한 핏빛이 인상적이며, 아기조마처럼 작다 하여 '해기단풍'이라 부른다.

올해는 단풍 나들이도 한결 수

월해 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내장산국립공원이 전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선정 관련 기반 조성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관련해 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2억원(국비20, 도비52.5, 시비29.5)의 예산이 투자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5~2016년까지 24억원(도비20, 시비4)을 투입해 내장산국립공원 백년대계사업과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용굴암) 탐방로 정비, 우화정 화장실 신축 등 9건을 완료했다.

올해는 19억8000만원(도비12.5, 시비7.3)을 들여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은적암) 탐방로 정비와 내장산국립공원가람광장 시설 확충, 정읍시 스토리 전망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취약아동 민관협력 주거환경개선 봉사 펼쳐

복지허브화를 추진 중인 부안군 부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욕실조차 없는 창고건물에 거주하여 위생환경이 열악한 취약아동가정에 민관협력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여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 봉사와 아동정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웠다.

강모(초5) 군은 가정에서 세신(洗身)이 어려워 비위생적인 활동으로 교육연계가 원만하지 않아 자존감이 상실 보호자 또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에 시달려 지수리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부안읍 맞춤형 복지팀은 소봉행정으로 이를 해결할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국제로터리 3670부안지

구 4개 로타리클럽을 중심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부안군 좋은 이웃들 등에 연계하여 1,700만 원 상당의 비용으로 지난 달 17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지붕교체, 도배장판, 주방 및 욕실살치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를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동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안군 드림 스타트 아동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하였다.

국제로터리 3670부안지구 4개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이번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으로 취약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토록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위한 민·관 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어 보람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several gift sets.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character.